

고분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본관리 고분군의 축조집단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Based
on Ancient Tombs and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이 동 희

인제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I. 머리말

II. 대가야의 정치체제

III. 대가야 권역 고총체계와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IV.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와 본관리세력의 위상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대가야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고령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가야 통제하의 지방 수장의 고분 규모나 위세품은 고령 세력과 유기적인 관련을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 고대국가론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헌 내용을 고려하면 대가야연맹체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 직할지(上部), 下部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일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대외 교섭창구인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帶沙)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가라국에서의 거리에 따라 동맹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에서 가장 거리가 먼 호남동부지역의 임나사현이나 기문의 경우 자율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신라, 백제와 달리 대가야의 소속국에 대한 간접지배 강도는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 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고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초기국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구조적 특징이나 위세품은 대가야 권역 내 지방 수장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면도 일부 보인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에서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고는 고총의 규모나 위세품에서 가장 상위의 고분군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자리하는데, 입지 · 출토유물로 보아 대가야 왕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유력집단으로 파악된다. 본관리세력은 5세기 후반 이전에는 고령지역 읍락의 핵심취락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왕도 내 방어를 전담하는 유력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 본관리세력은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대가야 왕권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고분, 대가야, 정치체제, 본관리, 왕경 방어

I . 머리말

본고는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는 대가야의 전성기이면서 신라의 급성장에 따라 국방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대가야 중심부인 왕도의 사회구조와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단일연맹체론, 지역연맹체론, 고대국가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에 주로 논의되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야사 연구는 문헌이 빈약하여 고고자료를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본고는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고대국가론과 지역연맹체론의 경계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대가야는 5세기대에 급성장하는데, 경남서북부권 뿐만 아니라 호남동부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 대가야 권역 내에서는 고분의 구조나 위세품, 토기 등에서 동질성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대가야 권역 내에서 직접지배, 간접지배, 상하 연맹관계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규모 · 구조적 특징 · 위세품 등을 대가야 왕도 및 지방 수장층 고종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의 위상과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5세기 후반 이후에 주로 축조된 본관리 고분군 세력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왕도 내 방어체계 내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할 것인데, 왕경 방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가야에서 5세기 후반 대 이후에 성곽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면서 방어체계가 성립된 배경을 신라의 서진과 관련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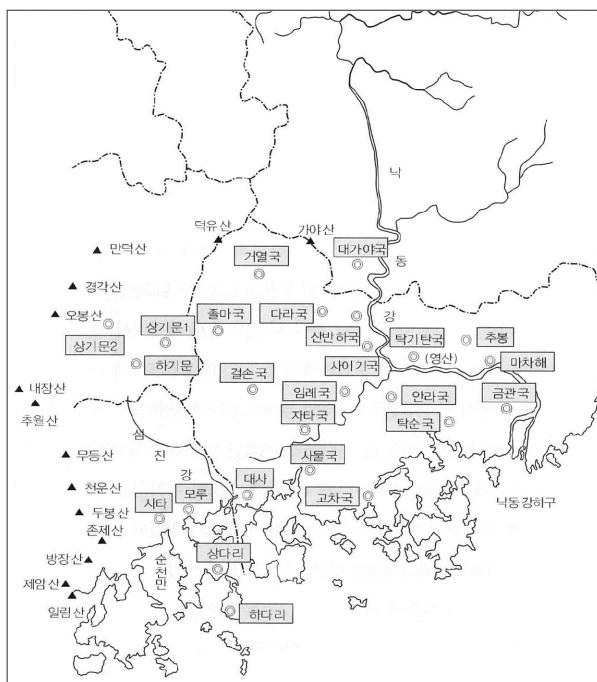
II . 대가야의 정치체제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대가야의 정치체제는 대가야연맹론(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대국가론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주로 논의되고, 문헌사학자들은 대가야연맹론을 옹호하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대가야연맹론(지역연맹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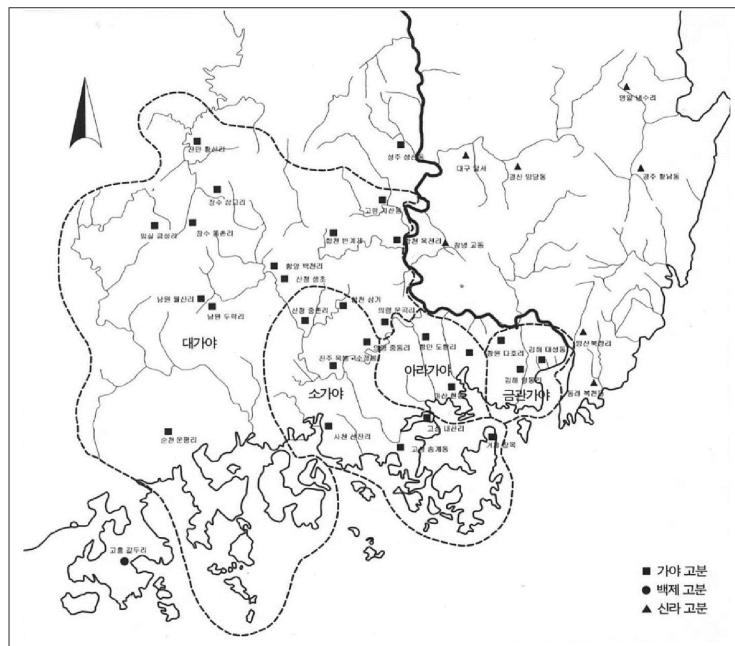
田中俊明(1990)에 의해 처음 거론된 대가야연맹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가라국(대가야) 왕 하지의 대 남제 교섭의 경로상에 있는 소국들은 우륵 12곡에 나오는 國名들의 소재지이고 이 소국들이『梁書』백제전의 傍小國 기사나『日本書紀』의 임나부홍회의 관계 기사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아 각국은 독립적이므로(그림 1)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가야의 중심인 고령세력을 중심으로 우륵 12곡에 거명되는 소국이 대가야 연맹에 가입한 國名이라는 것이다. 田中俊明은 대가야연맹 경계의 하한을 남강으로 보고, 그 이남의 安羅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을 대가야연맹과 다른 정치체로 보았다.

한편, 백승충(1992)은 가야 전체를 단일연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복수의 지역연맹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락국(금관가야)·가라국(대가야)·안라국(아라가야) 등 3~4개의 다수 정치체가 주도가 되어 독자적인 지역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라국(대가야)을 중심으로 보면, 가라국과 주변 가야제국의 관계를 동일한 정치권역으로 설정하고 위세품의 사여와 지배층 고분의 위계화를 통하여 소속 국들을 통제하였다고 보았다.



[그림 1] 문헌사에서 본 5세기 후반~6세기 초 가야의 여러 나라(김태식 2002)

아울러, 대가야의 제의문화를 소속국들에 파급시켜 일체성을 강조하는 대가야동맹은 고령세력을 맹주국으로 다양한 지역 정치체들이 존재한 권역으로 파악하였다(백승충 2005: 32~37). 대가야양식의 묘제, 유물 등 고고자료의 지역성(그림 2)이 지역연맹체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2] 고고자료로 본 5세기 후반 가야 여러나라의 권역(박천수 2010)

2. 대가야국가론

대가야 고대국가론은 연맹의 단계를 넘어 여러 소국을 통합한 영역국가에 이른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희준은 고령양식토기(대가야토기)의 확산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대가야양식 토기가 고령-합천(서부)-거창-함양-산청(북부)-남원(동부)-장수 등지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여, 고령세력이 주변 여러 지역과 간접지배-직접지배 관계를 맺으면서 상하 연맹(5세기 전반)에서 영역국가(5세기 후반)로 발전했다는 것이다(이희준 1995: 409~442).

한편, 김세기는 대가야가 5세기 중후반에는 고대국가체제를 이루한 것으로 보았다. 즉, 왕권의 세습, 部체제를 통한 지방조직의 성립, 首位制에 보이는 중앙관제, 고령지역 이외에 경남 서북부 및 호남동부지역에 이르는 영역, 신라·백제에 군사 파견, 남제로부터 작위 수여, 금관 사용, 대왕명 토기,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에서 유추되는 불교 수용 등으로 보면 50~60년 정도이지만 모호한 연맹왕국이 아니라 고대국

가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파악하였다(김세기 2003).

그리고, 박천수는 대가야가 5세기 전엽 이후에 합천·장수·남원 등 고령 서남쪽 지역 수장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황강·남강·섬진강수계를 넘어 남해안의 항구인 하동으로 가는 반월상의 교역루트를 개척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영역 지배를 실시하는 등 고대국가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30인 이상의 순장이 확인된 지산동 44호분의 피장자는 대가야의 최고 수장으로서 휘하의 여러 정치체의 수장 충들을 계층적으로 편성하여 대가야권역을 통치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479년에 대가야의 하지가 남제에 견사하여 받은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작호, 대가야 양식 장경호에 '大王'이라는 명문의 존재 등도 대가야가 고대국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박천수 1996: 377~402).

3. 대가야 정치체제의 재검토

대가야국가론을 제창한 이희준은 대가야연맹론(田中俊明 1990)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즉, "고령토기양식의 확산 자체가 연맹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정치적 상하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 만약, 고령 토기 양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지역들이 그저 고령을 맹주로만 하는 연맹이라면 왜 하필 일방적으로 고령 토기 양식만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가 없다. 고령 이외 지역에서 고령양식토기가 지속적이면서 일색으로 부상되는 지역은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북부(생초), 남원 동부(운봉고원), 장수, 하동, 순천 등지이다. 고령지역과 연맹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 지배하에 들어갔던 지역들로 파악된다. 신라의 지방들과 흡사하게 대가야의 간접지배와 함께 고령토기양식이 유입되고 고총군이 축조되기 시작한 대가야국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희준 2016: 59~62).

이희준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였다. 즉, "초기국가¹⁾에 해당하는 대가야의 경우, 지방 각지의 수장들이 정기적 공납 이외에 대가야 왕의 상장의례 기간 중에 조문을 하면서도 공납물과 막대한 부의 물품을 고령지역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물품이 고령지역 지배 집단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대규모 고총 고분군을 축조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

1) 초기국가는 후내 율령을 가진 고대국가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사회구조에서는 같은 통합단계를 가진 국가로 파악된다(김용성 2015a: 163).

가야 영역 내 소속국의 고총들에서 확인되는 대가야식 금제이식과 토기들²⁾은 貢納制 지배가 실시되었음을 암시하는 간접 증거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이희준 2016: 355).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문헌자료가 있는 고구려와 옥저 등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3세기대 『三國志』에서는 동옥저와 읍루를 ‘國’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두 종족집단이 大國인 고구려, 부여에 예속되어 貢納을 바치던 ‘小國’이라는 의미이다. 2~3세기 고구려는 동옥저를 臣屬시키고 大人을 통해 해당 지역을 간접지배하였다. 그리고, 고조선 시기에 豺國도 대국인 고조선에 예속되어 있던 소국의 종족사회라고 볼 수 있다(박대재 2023: 37~40).

이처럼, 토착 우두머리를 통한 간접지배(貢納制 支配) 당시에 국명이 나오는 경우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다. 다만, 중심국과 소국 사이의 상호 관계는 거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지배의 강도가 달랐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문헌사에서는 대가야연맹론에, 고고학계에서는 대가야국가론에 치우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야시대는 역사시대이므로 문헌사를 도외시할 수 없다. 즉, 6세기대에도 국명이 남아 있는 사례를 고려하면 단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

필자는 고령의 대가야 왕도 및 고령과 가까이 있는 지역(합천 반계제유적 등 합천 댐수몰지역)이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하동(대사)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지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가야에 의한 간접지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대가야 중심지에서의 거리에 따라 간접지배의 강도는 달랐을 것이다. 예컨대, 고령에서 거리가 가장 먼 남원이나 순천세력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기문으로 추정되는 남원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대가야계 유물 뿐만 아니라 백제계 위세품들도 다수 확인되어 자율성이 뚜렷하다. 한편, 순천 운평리 고분군, 특히 2호분은 대가야계 위세품과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고 대가야계 순장곽이 확인되지만 주 매장주체부는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이라는 점에서 자율성이 돋보인다(그림 3).

간접지배 혹은 상하연맹관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동맹의 구성국 가운데 변방에 자리한 정치체들은 원심력이 작동하여 주변 여러 세력과 교섭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예컨대, 기문으로 추정되는 남원 운봉세력은 대가야계 묘제(‘11’자식 주부곽)와 금제수하부이식 외에 다수의 대가야토기류가 출토되어 대가야권역에 속

2) 금제이식은 대가야 왕도 고령의 지배층이 지방 각지 수장층의 생전에 그 지위를 인정하는 표식으로서, 토기는 수장층의 장례 무렵에 부의품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이희준 2016: 381).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원 운봉세력은 백제와의 교섭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높은 자율성, 자유로운 외교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원 운봉고원의 월산리 5호분 출토 초두와 청자계수호, 두락리 32호분 출토 청동거울과 금동제신발은 백제와의 교섭을 통해서 부장된 것으로 파악된다.³⁾ 기문이 대가야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백제를 통해 백제 및 중국계 위세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가야연맹을 구성하는 정치체 가운데 일부는 가라국과의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때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백진재 2020: 137~153).

그리고, 5세기 말~6세기 초에 대가야에 속해있었다고 파악되는 임나사현(任那四縣)이 백제에 영역화되었을 때 대가야의 큰 반발없이 백제에 편입됨은 대가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었고 대가야와의 동맹의 결속력이 여타 동맹국들에 비해 약했음을 의미한다. 고고자료로 보아도, 임나사현 가운데 ‘사타’의 지배층 고분군인 순천 운평리 M2호분은 대가야식 위세품과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지만, 주 매장주체부는 고령 양식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가 아닌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묘(그림 3-左)라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고 하겠다(이동희 2014: 328~368). 순천 운평리 고분군의 경우 대가야 양식 유물의 존속기간이 1~2세대 정도로 짧고, 금제이식도 대가야양식 뿐만 아니라 신라 양식 이식이 공반되었다는 점(그림 3-右)에서 대가야 변경지에서의 자율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게다가, 순천지역 출토 대가야토기는 현지에서 생산된 토기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대가야 중심인 고령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이한상 2019: 301~305).



[그림 3] 순천 운평리 M2호분 및 출토유물(이동희 2014)

3) 6세기 전엽에 백제 주변 소국으로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已文, 下枕羅 등이 있어서 백제에 부용한다는 기록이 있다(『梁職貢圖』百濟國使傳).

요컨대,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上部), 下部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대사)⁴⁾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언하면, 대가야 왕도의 지배층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은 그 규모가 여타 지방 수장층보다 탁월한데 비해 인근에 下部로 추정되는 합천댐수몰지구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섬진강 하구의 하동 등 거점지역은 6세기 이후에 고총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 대가야의 직접지배권역으로 파악된다.⁵⁾ 대가야는 신라·백제에 비해 직접지배권역이 상대적으로 좁고 통제력도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라·백제와 비교하여 위세품 사여의 질과 양에서 차이가 보인다. 대가야의 위세품 사여에 대해서는 금제이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가야 양식 금제이식은 고령(지산동) 외에 합천(옥전·반계제), 함양(백천리), 산청(평촌리), 진주(중안동), 고성(율대리), 창원(다호리), 순천(운평리), 남원(월산리), 장수(봉서리) 등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다.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이다. 대가야 양식 금제이식은 대가야 양식 토기와 공반하는 경우가 많고 공반하지 않더라도 공반하는 무덤에 인접해 있다(박천수 2006; 이한상 2019). 이러한 이식 분포권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치환하기는 어렵지만 대가야 양식 토기와의 조합관계를 고려할 때 영역은 아니더라도 세력권으로 묶어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식이나 장식대도 등 대가야 양식 금공품의 제작지를 대가야로 보고 소유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대가야의 성장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그 중심에 위치하였을 대가야 왕은 금공품 사여 주체가 되었을 것이다. 479년 남제에 견사한 가라왕, 481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백제와 함께 참전하여 신라를 도운 가야의 왕, 법흥왕대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은 가야 국왕은 대가야 왕을 지칭하므로 외교와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통합된 왕권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금속장신구로 보면 백제나 신라에 비해 대가야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가야의 금속장신구는 관복의 부품이라기보

4) 하동 홍릉리 고분군의 경우, 대가야계 토기류는 다수 출토되지만 토착 수장의 고총이 확인되지 않아 대가야의 직접지배권역으로 파악된다(박천수 2006).

5) 6세기 1/4분기가 되면 가라가 기존의 간접지배 영역 중 고령과 가까운 지역을 직접지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합천 봉산면 반계제 고분군의 경우, 중대형 고총을 가진 수장층의 묘가 이 무렵부터 축조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이 가라의 직접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희준 2016: 261).

다는 신체를 장식하는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공품을 사여하여 각 지역 세력을 지방지배체제에 편입시키고 그들을 매개로 국가의 권력을 관철하는 지배방식이 대가야에도 존재한 것 같으나 백제와 신라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것 같다. 즉 연맹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관계의 징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한상 2019: 301~305).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성숙한 고대국가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초기국가⁶⁾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III. 대가야권 고총체계와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1. 대가야권 고총체계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의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과 대가야 산하 수장층의 주요 고총의 특징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가야 왕도인 고령지역 고총의 특성은 주곽과 부곽, 순장곽으로 구성되고, 부곽·순장곽의 유무와 순장곽의 수는 피장자의 위계와 관련된다(그림 4). 주곽과 부곽의 배치는 'T'자형에서 '11'자형으로 변화하고, 순장곽은 계층에 따라 1기부터 수십기가 주곽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대가야에서는 유물을부장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부곽이 상위 계층의 고총에서 발견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하위의 고총에서는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많다. 하지만, 순장곽은 최고 위계의 고총 및 일부를 제외한 차상위의 대형분에서 다수 확인된다(김용성 2015a: 359~361).⁷⁾

6) 김대환은 기존에 연맹체, 연맹왕국, 부체제 등의 정치체제를 초기국가로 정의하면서 소국-초기국가-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과정을 설정하였다(김대환 2012: 60~63). 대가야보다 사회발전단계가 이른 신라도 6세기 전엽이 되어서야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가 확대되어 성숙한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갔던 것을 감안하여(박대재 2013: 267) 대가야의 정치체제를 유추해야 할 것이다.

7) 대가야권에서 순장곽의 유무는 왕도에 소재한 지산동 35호($6.66 \times 1.01 \times 1.56m$)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 매장주체부·길이 5m를 경계로 한다.

[표 1] 5세기 후반~6세기 전엽 대가야권 주요 고총의 비교(김용성 2015a: 360 일부 인용)

고분명	봉토 규모(m)	주부곽 배치	순장곽 배치	순장 곽수	주곽 규모(m)	주요 출토유물	비고
고령 지산동 44호	27×25	'11'+T'자형	'ㅁ'자	32	9.4×1.75×2.1	복발형투구, 금제이식, 청동합, 마구	왕묘
고령 지산동 45호	28×25	'11'자형	'ㅁ'자	11	7.15×1.6×1.85	금동관, 마구류, 금제이식, 유리경식	왕묘
고령 본관리 34호	지름 11.8		평행	1	6.0×1.0×1.2	축소모형철기, 물미, 금제이식, 유리옥	
고령 본관리 35호	지름 15.5		평행	1	8.2×1.1×1.5	철지금동제소찰, 철모, 교구, 축소모형철기	왕도 차상위 지배자/ 귀족
고령 본관리 36호	지름 18.5		평행	1	10.1×1.4×1.8	축소모형철기, (소)환두대도편, 미늘(갑옷) /재갈, 은장십자형장식(마구), 금제이식, 유리옥(순장곽)	
합천 반계제 가A호	16×13		평행	1	6.4×1.3×1.7	성시구, 환두대도, 금동투구, 마구류	지방 수장
합천 반계제 가B호	지름 7		無		4.0×0.8×1.15	철모, 철촉, 꺾쇠	
합천 반계제 디A호	15.6×12.5		평행	1	5.5×1.2×1.7	마구류, 대도, 은제이식, 기꽃이	지방 수장
함양 백천리 1호	지름 15		평행	1	7.3×1.2×1.7	마구류, 화살통, 환두대도, 금제이식	지방 수장
함양 백천리 2호	?	'11'자형	無		6.5×1.9~2.5×1	철모, 대도, 마구류	지방 수장
남원두락리 32호	21×17.4	'11'자형	無		7.3×1.3×1.8	축소모형철기	지방 수장
순천 운평리 2호	지름 18		'ㅁ'자	6	5.2×2.5×0.8(잔존) 횡혈식석실	금제수하부이식, 마구류, 유자이기	지방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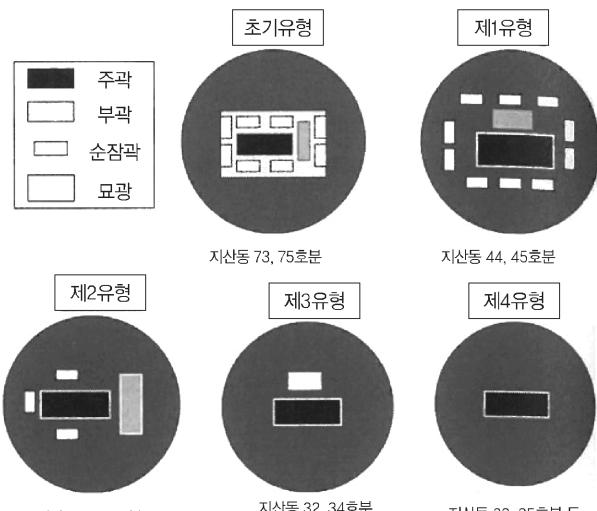
이처럼, 대가야권에서 부곽의 존재는 특별하여 왕도인 고령의 왕묘에서 주로 확인되지만, 드물게, 지방의 수장급 고총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즉, 함양 백천리 2호와 남원 두락리 32호분의 '11'자형 부곽이 그 예이다. 하지만, 백천리와 두락리의 경우는 순장곽이 없이 부곽만 존재하여 대가야 지방권 수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편, 순천 운평리 2호분의 경우는 대가야권 지방에서는 특이하게 6기의 순장묘가 주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ㅁ'자형으로 돌아가 지산동 44·45호분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곽이 없어 대가야 중앙의 왕묘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부언하면, 운평리 M2호분은 대가야 고총체계에서 약간의 이질성이 보인다. 즉, 대가야 지방의 수장층 고분에서는 순장곽이 1기인 것이 일반적인데, 운평리 2호분의 경우, 순장묘 6기와 배장묘 6기가 확인된 것이다. 배장묘는 소가야권에서 일반적으

로 보이는 매장풍습이다. 그리고, M2호분의 매장주체부가 대가야식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가 아니라 소가야권에서 다수 보이는 송학동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이다(그림 3). 이는 대가야권에서 가장 변경이면서 소가야와 해로로 연결된 순천세력은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독자성이 더 강하였다고 보여진다. M2호분에서는 대

가야식 금제이식 이외에도 신라양식의 금제이식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렇듯, 순천 운평리, 남원 두락리, 함양 백천리 등의 고분군에서의 주매장주체부·부곽·순장곽은 대가야 중앙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가야 변경지역에서의 자치권과 일정한 자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림 4] 대가야 고총의 묘곽 배치 모식도(김용성 2015a)

2) 지산동 44·45호분과 본관리 34~36호분이 축조되는 단계에 대가야 고총의 위계는 주·부곽 주위로 순장묘가 돌아가는 1, 2유형이 최상층이고, 그 아래로 주곽과 순장곽 1기가 평행한 3유형이 차상위 지배층으로 볼 수 있다(그림 4). 이러한 유형 분류는 고분의 규모와 연계되어 위계 차이로 볼 수 있다. 최상위의 1·2유형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국한되고, 다음 위계로 3유형이나 순장곽이 없이 주부곽이 보이는 사례로 고령 본관리, 남원 두락리, 함양 백천리, 합천 반계제 등의 유적이다. 대가야 왕도 내부에서는 위계가 분화되어 있었고, 대가야권 여러 지방의 지배 집단은 그 내부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용성 2015a: 380~381).

이와 같이, 대가야 전성기에 대가야권의 수장층 사이에도 ‘대왕’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최고 지배층을 정점으로 왕도 내 차상위 지배층인 본관리 고분 피장자 및 지방 왕묘인 함양 백천리·남원 두락리·합천 반계제·순천 운평리 등의 세력들이 그

다음의 위계를 보이는 대가야권 고총체계를 상정할 수 있겠다. 다만, 대가야권역의 가장 변경인 순천 운평리 유적 등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보여 대가야 주변부에서의 지역성과 자율성이 보인다.

한편, 고령 본관리 고총의 피장자는 왕도 내의 지산동 고분군보다 낮은 위계이지만 대가야 지방 왕묘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관리 36호분(그림 7)은 지산동 44호분보다 더 긴 주곽 규모, 통형기대, 주곽이 아닌 순장곽에서의 금제수하 부이식 등으로 보면 대가야 지방 수장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장자가 대가야 왕권의 신임을 받는 차상위지배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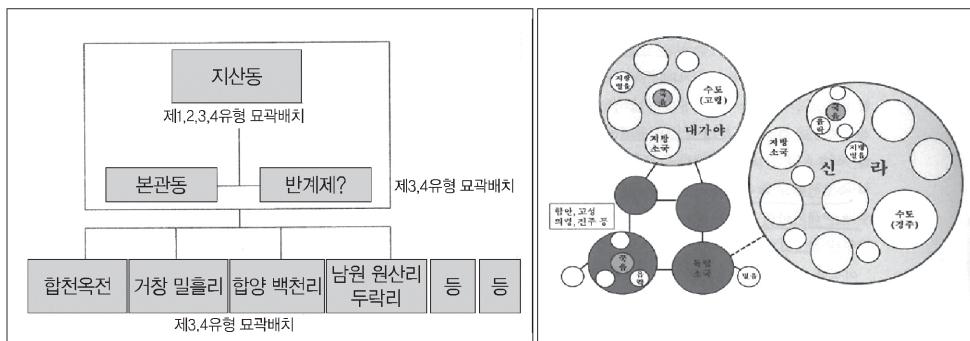
3) 대가야의 고총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대가야권 고총이 지산동을 상위로 하여 위계화가 되었음을 신라의 고총체계와도 비교된다(그림 5). 대가야권은 통형기대 등으로 유추되는 동질의 의례권이 확인된다. 대가야의 고총체계 성립은 초기국가로의 진입과 관련된다. 즉, 왕묘인 44호분 축조시기에 해당하는데 중국 남제에 대한 견사기록(479년)도 그와 일치한다. 견사기록이 대가야가 완성된 고총체계를 가진 광역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초기국가로 진입(박천수 2012)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대가야의 고총체계는 5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에 완성된 것으로 고령을 상위로 하여 그 하위에 지역 고분군(합천 옥전 · 반계제, 함양 백천리, 거창 말흘리, 남원 두락리 고분군 등)의 세력집단이 포진한 체계로 볼 수 있다(그림 5-左). 각 지역들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고령의 간섭으로 통제되었을 것이다. 간접지배 형태였는지, 아니면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된 연맹의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합천 옥전의 경우, M3호분의 축조기에는 독립 소국으로서 기능하였으나 M4호분 축조기 이후에는 대가야의 간섭이 심해지고 거기에 소속된 지방 소국으로 기능한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초기국가의 출현을 알려주는 고분군이기도 하고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한 정치체 수준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대가야는 신라의 광역정치체보다는 좁으나 이전 소국의 단위였던 지역 수준을 넘은 영역을 가진 정치체로 존재하였다. 대가야가 광역의 초기국가로 발돋움한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 이후에 낙동강 서안의 가야지역에는 국가체를 형성한 대가야와 그 내부 지방 소국, 그 바깥의 주변 소국이 분포하는 양상이다(그림 5-右)(김용성 2015a: 382~384).”

2. 고분군의 등급으로 본 대가야의 중앙과 지방

김세기는 “5세기 후반의 대가야 고분군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표 2), 1급 묘형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집단은 지방 수장층 중심의 2, 3급 고분군 집단을 직접지배하여 대가야의 영역에 편입시켰다.”고 보았다. 1급 묘형은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만 확인된다.(김세기 2003: 235~258).

대가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순장곽 및 위세품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대가야 고종의 위계(左) 및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영남지방 사회구성(右: 김용성 20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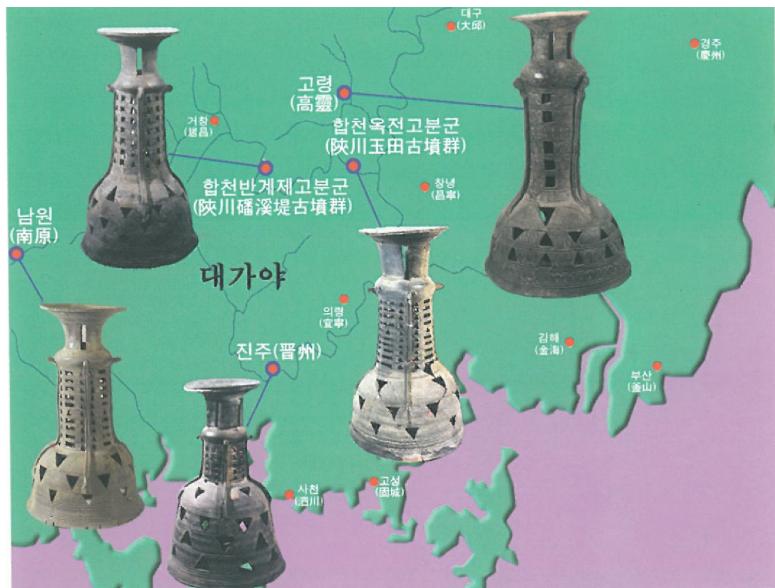
[표 2] 5세기 후반~6세기 전엽 대가야 고분의 등급(김세기 2003 일부 수정)

	봉토직경	매장주체부 배치	순장곽수	위세품	사례	피장자
1급	20m 이상	주곽, 부곽, 순장곽	순장곽 10기 이상	금동관식, 금동제마구	고령 지산동 44·45호	대왕
2급	10~20m	주곽, 순장곽 /주곽, 부곽 (백천리 2호, 두락리 32호)	순장곽 1기	갑옷, 투구, 대도, 마구, 금제이식	고령 본관리 34~36호	왕도의 차상위 지배자
	10~25m		순장곽 1~6기		합천 옥전 M4호, 반계제 가 A · 다A호, 함양 백천리 1~4호, 남원 월산리 M1A호, 남원 두락리 1·32호, 순천 운평리 2호	지방 수장
3급	10m 미만	주곽	순장곽 없음	투구, 대도, 화살촉, 금제이식	고령 본관리 36-C호	왕도의 하위지배자
					합천 반계제 가B호	차상위 지배자(지방)

1) 대가야의 주변 지역으로의 영역 확장은 대가야식 순장곽 순장 이외에 통형기 대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가야식 원통형 기대는 지방 수장층 무덤에만 보이는 것으로

로, 대가야의 의례체계(제의권) 속에 편제된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야 복속지역이나 새로이 관계를 맺은 지역에 대한 臣屬관계의 표시로 대가야 중앙에서 하사하는 위세품이다. 이는 신라권에서 경주세력이 복속지역에 출자형 금동관을 사여하는 신속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김세기 2003: 243~244).

지배층 제의권 관련 토기인 원통형기대는 지산동 30·32·44호분 등 대가야 왕도에서 출토되었고, 지산동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통형기대는 합천 옥전 M6호분, 합천 반계제 가B호분, 의령 경산리 1호분, 진주 수정봉 2호분, 남원 두락리 1호분, 순천 운평리 M2호분 등 대가야권 지역 집단의 유력자 무덤에서 출토되어 대가야의 중앙 왕권이 지방지배자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이러한 고분들에서는 대가야식 금제수식부 이식이 동반되고 있다(김세기 2023: 80).



[그림 6] 대가야 전성기의 대가야 원통형기대의 확산(국립김해박물관 1999)

2)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34·35·36호분은 모두 순장곽 1기만 있는 단곽 순장곽이어서 지산동 왕묘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가야 관할 지방 수장묘와 유사한 위상을 보인다. 위세품에서도 갑주류는 보이지만 관모류가 보이지 않는다. 2급 고분에 해당하는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은 대가야 왕경인 연조리와 지산리 고분군 근교지역에 위치하며, 지산동 44·45호 왕묘의 직접지배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김세기 2003: 254~277).

3) 대가야 영역으로 파악되는 지역은 대부분 대가야식 묘제의 2급 묘형이나 3급 묘형의 봉토분이 존재하고, 대가야 토기 일색의 토기문화와 대가야식 축소모형 농공구 부장 등의 양상이 보인다(김세기 2003: 256).

4) 우륵12곡의 상가라도와 하가라도는 바로 대가야의 상부와 하부를 의미한다. 6세기 전반 대가야 최성기의 영역을 보면, 직접지배영역은 상부인 고령지역⁸⁾과 하부인 합천 봉산면(반계제, 저포리 고분군) 등지이다(김세기 2003: 256~277). 하가라도(하부)에 대해 고령 가라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합천 옥전 고분군으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백승충 1995). 하지만, 옥전 고분군이 위치한 합천군 쌍책 일대는 늦은 시기까지 고유국명을 유지하고 있어 우륵십이곡에 등장한다면 '다라'라고 나타났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같은 합천지역인 반계제 고분군, 저포리유적 등이 위치한 합천군 봉산지역이 하가라도였을 가능성이 높다(이형기2017: 85). 이와 관련하여, 반계제 고분군이 대가야 멸망 훨씬 이전에 중단된다는 사실은 그 주체들이 유명무실화되고 고령세력이 이 지역을 직접지배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이희준 2016: 214~215). 즉, 6세기 전엽에 봉산면 일대 고분군에서 중대형 고분군이 축조되지 않아 대가야의 직접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다(이희준 1995: 423~426). 부체제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라국은 자체적으로 '대가야'를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이형기 2017: 86~87).

대가야가 부체제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고령 중심지가 王都 즉 上部로, 합천댐 상류지역인 봉산면 일대는 王畿=下部로 편제되고 이들은 대가야의 직할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 거창, 함양, 남원 동부 일대의 지역은 지방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소국의 수장들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자치권)가 가능하였다. 이는 임나부흥회의에 이 소국들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이형기 2017: 101).

8) 상가라도는 성부의 치소이며 國都인 고령의 연소리와 지산리 고분군 일대를 말하는 것이다(김세기 2003: 276~277).

3.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

1) 본관리 고분군 개요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읍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3.5km 이격된 본관리 관동마을 뒷산에 자리한다. 봉토분 62기 정도가 능선을 따라 500m 범위에 몇 개의 그룹을 이루며 군집되어 있다(그림 7). 고분군의 분포범위나 무덤의 밀집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500여기 이상의 무덤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으로 추정된다(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22: 15).

대가야 중심권역에서 지산동 고분군을 대고분군이라 할 때 본관리 고분군은 북쪽의 소가천 건너 월산리 고분군, 동쪽으로 10km 이격된 낙동강 서안의 박곡리 고분군과 함께 중고분군에 해당한다(그림 8)(김세기 2023: 60).

[표 3] 발굴조사된 고령 본관리 고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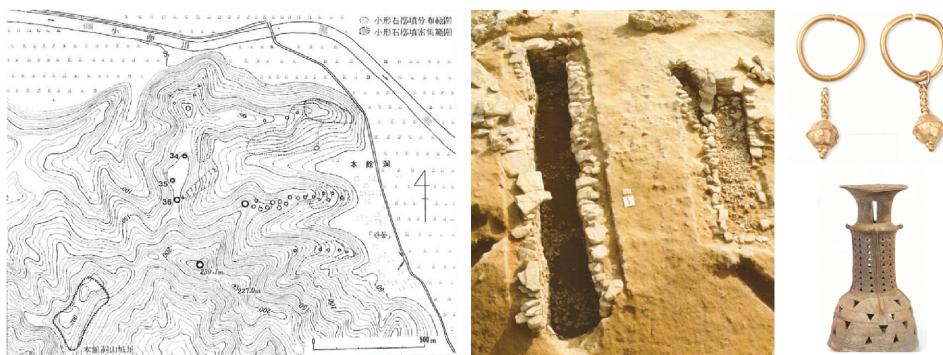
고분명	봉토 규모(m)	주곽 규모(m)	순장곽 규모(m)	주요 유물	기대
본관리 34호	지름 11.8	6.0×1.0×1.2	1.7×0.5×0.3	축소모형철기, 도자, 철촉, 물미, 꺽쇠, 은제이식, 유리옥	발형
본관리 35호	지름 15.5	8.2×1.1×1.5	2.4×0.8×0.5	철지금동제소찰, 철모, 교구, 축소모형철기, 꺽쇠	발형
본관리 36호	지름 18.5	10.1×1.4×1.8	5.1×1.0×0.9	축소모형철기, 꺽쇠, (소)환두대도편, 미늘(갑옷) / 말재갈, 은장십자형장식(마구), 소철활, 관못, 금제이식, 유리옥(순장곽)	발형6, 통형2

발굴조사된 본관리 고분군의 3기 봉토분은 주곽과 순장곽 1기를 가진 단곽순장고분으로 지산동 고분군의 32·34호분과 합천 반계제 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산청 생초리 고분군 등과 같은 묘제로서 대가야 영역의 최고 지배층보다는 1단계 낮은 지배층이지만, 지방 수장층의 무덤 형식과 유사하다(김세기 2023: 79).

특히, 본관리 고분군 중에서 최대 규모인 36호분은 주곽의 길이가 10m에 달하여 대가야권에서 최대 규모이며,⁹⁾ 순장곽의 길이도 5.1m에 달하여 대형이다(그림 7).¹⁰⁾ 순장곽에서 수하부금제이식이 출토된 예는 대가야권 지방 수장층의 무덤 사례에서 보이지 않고 고령 지산동 44·45호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고분의 격이 높다. 순장

9) 주곽의 길이로 보면, 본관리 36호가 10m에 달하여 지산동 44호의 9.4m에 비해 더 길다. 다만, 면적에서 13.5m²로 지산동 44호(16.5m²)과 차이나며 순장곽 수나 유물에서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10) 34·35호 주곽에서는 발형기대가 출토되는데 비해, 36호에서는 통형기대 2점, 발형기대 6점이 확인되어 고총의 규모와도 연동된다.



[그림 7] 고령 본관리 고분군 분포도(左: 김세기 2023), 본관리 36호분 및 출토유물(右: 대가야박물관 외 2022)

곽에서는 마구류도 다수 출토되어 페장자가 노비라기보다는 가신으로 판단된다.

지산동 44·45호 등 대가야 왕묘급 순장곽에서만 금제수하부이식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관리 36호분의 위상은 대가야 지방 수장충의 고총 고분보다 오히려 우월하다. 즉, 대가야 왕도 내 직할지인 본관리 집단의 위상이 대가야 지방의 자치권을 가진 소국의 왕묘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수장충 무덤에만 부장되는 통형기대(그림 7-右)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이처럼, 최고지배층의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야지역에서 지배권의 상징인 원통형기대가 본관리 3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대가야 도읍지인 지산동고분 출토 원통형기대와 흡사한 기대가 36호분에서 출토됨은 본관리 고분군의 위상이 높았음을 의미한다(김세기 2023: 80). 대가야통치체제하에서 통형기대와 금제이식의 사례는 백제나 신라 중앙에서의 간접지배하의 지방 수장들에게 금동관을 사여한 것과 유사하다.

2)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의 위상

전술한 바와 같이, 본관리 고분군 축조세력은 고총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면 대가야 왕도의 지산동 고분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가야권역의 여타 소국의 수장묘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유물이 탁월한데 36호분이 주목된다. 즉 36호분의 매장주체부 규모는 $10.1 \times 1.4 \times 1.8\text{m}$ 로서 지산동 고분군의 왕묘에 필적한다. 그리고 도굴이 심한 36호분의 주곽에서는 위세품이 미약하지만, 순장곽에서는 다수의 위세품이 확인되어 36호분의 위상을 뒷받침해 준다. 즉, 순장곽에서는 말재갈 1점, 마구장식인 은장십자형장식 2점, 소철환 3점, 금제이식 1쌍, 유리구슬 일괄 등이 출토되었

다. 금제이식(그림 7)은 지산동 45호분 부실의 순장인이 착장하던 것과 유사하다. 유리구슬은 지산동의 여러 고분에서 순장자가 착장한 목걸이에 많은 것으로 금제귀걸이와 함께 순장자의 신분이 주인공을 보필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김세기 2023: 75~77).

대가야 권역 지방 수장급 묘역의 순장곽에서 금제이식이 출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본관리세력이 특별한 존재로서 지산동 왕권과 직결된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지산동의 왕묘급 고분인 44·45호분의 순장묘에서는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된 바 있다. 즉, 44호분 6·11·32호 순장곽 및 45호분 7호 순장곽 등에서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대가야고분의 착장유물에 의한 위계를 금제수식부이식, 금제이식이나 금동 또는 은제의 수식부이식, 금동 또는 은제의 소환이식, 이식이 출토되지 않는 고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금제수식부이식은 상당한 신분을 가진 인물이다. 금제수식부이식이 대개 대가야의 지방 고총에서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착용 인물은 지방의 최고지배자급 인물이다. 지산동 44·45호분에 순장된 인물은 지방 고총주에 벼금가는 지위를 가졌거나 그보다 약간 하위의 인물이다(김용성 2015b: 428). 따라서, 본관리 36호분의 순장묘에서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됨은 44·45호분의 순장묘와 유사한 지위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IV. 대가야 왕도 방어 체계와 본관리 세력의 위상

1. 대가야 왕도의 구조

대가야 왕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대가야 왕경지(대가야읍 연조리 궁성지와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일대), 북부 지역권(덕곡면·운수면 일대), 동부 지역권(성산면·다산면 일대), 남부 지역권(개진면·우곡면 중심) 등이다. 이러한 4개권역은 중심, 북부, 동부, 남부 지구로 각각 칭할 수 있는데, ‘原대가야’의 모습일 것이다(그림 8 참조). 한편, 왕도를 기능적으로 세분해 보면, 연조리 궁성지·주산성·지산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왕경지, 본관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근교지, 내곡리 토기요지, 야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철산지로 구성된다(이희준2016: 356~366). 토기

및 철 생산 관련 유적의 위치는 대가야 중심권역 중 상대적으로 방어 부담이 적은 안림천 상류인 서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이 있다(배성혁 2019: 175).

대가야읍내에는 지산동 · 본관리 · 쾌빈리 고분군 등이 위치하여(그림 6), 중대형 분만 해도 거의 200기이에 달하여, 여타 면 단위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이희준 2016: 360). 대가야의 최대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을 제외하면, 왕도 전체에서 중형급 이상 봉토분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본관리 고분군이다(표 4).

[표 4] 대가야 왕도 내 중형급 이상 봉토분¹¹⁾ 목록(이희준 2016: 359)

읍면 이름	고분군 명칭	고총 수	읍면 이름	고분군 명칭	고총 수
대가야읍	지산동	중대형분 123기 이상	운수면	월산리①	중형분 10여기
	본관리	중대형분 40여기		월산리③	중형분 15기
	쾌빈리	중형분 30여기	성산면	박곡리	중형분 20여기
덕곡면	후암리	중형분 2기	우곡면	도진리①	중형분 10여기
운수면	대평리	중대형분 10여기	쌍림면	신곡리②	중형분 10여기
	화암리	중형분 5~6기		용리	중형분 10여기

대가야 왕도 내에서 대가야읍을 제외하고, 각 면 단위의 고분군 가운데 중형분의 수가 10여기인데 비해, 월산리, 박곡리 고분군이 각 20여기 이상이어서 군집도가 높다. 월산리와 박곡리는 대가야 궁성 기준으로 보면, 북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바로 인근에서 산성이 자리하여 방어적 성격이 강한 위치이다. 대가야 궁성의 동쪽과 북쪽은 신라의 공격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다.

기존 연구성과를 보면, 경주지역의 평지 고총들은 마립간기에 사로국을 구성했던 여러 읍락의 지배층들이 재편되어 새로이 部를 이루면서 시내 중심부로 모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총의 분포지가 종래 읍락 수 개의 중심지들이 아니고 핵심 읍락의 중심지와 그에 근접한 지점(금척리 고분군)만으로 한정됨은 왕도 내부가 강력히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 읍락에 해당하던 지구들은 왕도의 직할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전 시기의 각 지구로 추정되는 구역들에 뚜렷한 중대형분이 없는 경주지역과 달리 고령지역에는 중대형 고총 군이 일부 확인되어 역내 통합이 경주지역보다는 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희준 2016: 364).

11) 이희준은 직경 15m 이상을 대형, 직경 10~15m를 중형으로 설정하였다(이희준 2016: 369~370).

대가야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 20여기 이상의 중형분이 확인되는 곳은 운수면 월산리 고분군과 성산면 박곡리이다. 월산리와 박곡리는 왕성에서 5~10km 정도 이격되어 고총 조영 이전에는 별개 읍락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대가야의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고 신라의 팽창이 가속화되는 5세기 후반 이후에는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산리 고분군과 박곡리 고분군과 인접하여 각기 운라산성과 무계리산성 등이 위치함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대가야읍 본관리 · 쾌빈리 고분군을 왕도의 중심부로 파악하면 왕경 지배층을 구성한 집단이 복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4~5km 이격된 본관리 고분군의 경우, 신라 경주분지의 월성북고총고분군과 일정 거리에 있는 금척리 고분군과 비교가 된다. 금척리 고분군은 잡탁부(모량부)와 관련짓는 견해가 강하다(이희준 2016: 374~376). 상기한 신라 왕도의 고총 고분군의 분포상을 대가야에 적용하면, 본관리 고분군도 경주 금척리 고분군과 같이 원래는 별개 읍락의 중심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가야 왕경지(연조리 궁성지와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일대)는 대가야 왕도의 중심지로서, 가야 최대 규모의 지산동 고분군이 조영될 수 있었던 것도 왕도의 물적 · 인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이희준 2016: 364~380). 지산동 고분군에서 6세기 초 이후에 가장 탁월한 입지에 축조된 척릉의 고총들은 ‘大王’명 토기가 암시하듯이 대가야에서 대왕이 등장한 시점을 전후하여 축조된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에 합천댐 수몰지구내 중대형 고총인 반계제 고분군이 갑자기 약화되므로 대가야가 해당 지역을 종래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전환하였다고 보는 관점(이희준 2003 · 2016: 380)과도 궤를 같이 할 것이다.

2.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에서 본관리 세력의 위상

1) 고령지역의 대가야 성곽 현황 및 왕도 방어체계

주산성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전후 범위에 축조된 무계리산성, 봉화산성, 도진리 산성, 소학산성, 만대산성, 노고산성 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산성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외의 범위에 축조된 망산산성, 운라산성, 옥산리산성, 미승산성등은 대가야 왕도를 방어하는 2차 방어선으로 추정된다(박천수 2020: 139). 고령지역 내 여러 대가야 성곽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표 5] 고령지역의 대가야 성곽 현황(정동락 2013 일부 수정)

번호	성곽명	위치	둘레(m)	역할 (방어망)	관련 고분군
1	대가야궁성지	대가야읍 연조리	550	궁성	지산동, 연조리, 고아리
2	주산성	대가야읍 연조리	1,420	궁성 배후성	
3	망산성	대가야읍 장기리	600	낙동강방면	장기리
4	풍곡산성	성산면 사부리	550	"	
5	의봉산성	운수면 신간리	1,000	"	
6	무계리산성	성산면 무계리	500	"	박곡리
7	봉화산성	성산면 강정리	100	"	
8	월성리 토성	다산면 월성리	150	"	
9	옥산성	대가야읍 본관리	300	대가천방면(성주)	본관리
10	운라산성	운수면 월산리	1,000	"	월산리①②③④
11	예리산성	덕곡면 예리	800	"	예리
12	노고산성	덕곡면 노리	800	"	백리①②
13	내곡리산성	대가야읍 내곡리	500	화천방면(현풍·창녕)	
14	도진리산성	우곡면 도진리	800	"	도진리①②
15	소학산성	우곡면 대곡리	1,200	"	
16	미승산성	쌍림면 용리	1,367	안림천방면(야로, 거창)	용리
17	만대산성	쌍림면 산주리	2,000	"	산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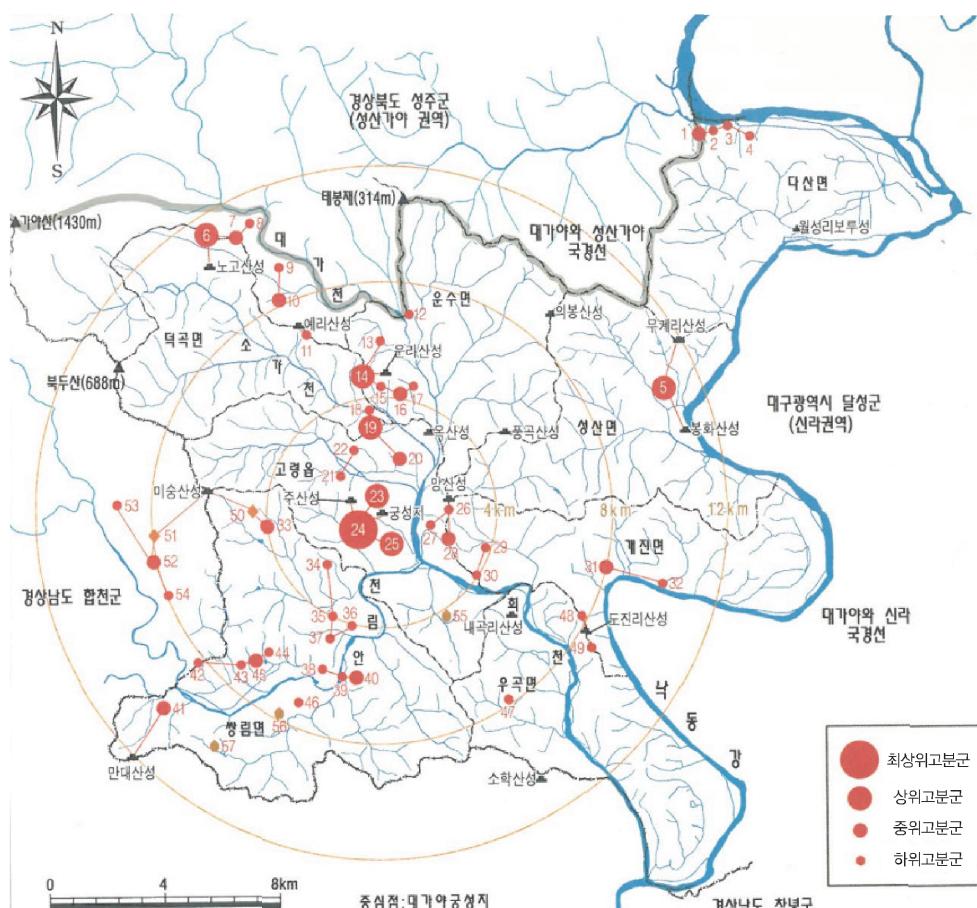
고령지역 산성의 특징은 인근의 고분군과 서로 조합관계를 이룬다. 주산성은 지산동 고분군, 망산성은 장기리 고분군, 무계리산성은 박곡리 고분군, 본관리 옥산성은 본관리 고분군, 운라산성은 월산리 고분군, 예리산성은 예리 고분군, 노고산성은 백리 고분군, 도진리산성은 도진리 고분군 등과 연결된다. 산성과 조합관계를 이루는 고분군 조영세력에 의해 해당 산성이 축조되었고 이들이 각 산성방어망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정동락 2013: 103).

상기한 바와 같이, 고령군 일대에는 여러 곳에 대가야 산성이 존재하지만 궁성지 일대의 대가야 왕성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성곽은 무계리산성, 운라산성, 옥산성, 망산성 등이다. 이러한 성들은 모두 신라 방어를 위해 대가야 궁성지의 동쪽과 북쪽에 분포하면서 인근에 고분군이 위치하여 상시 방어체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들을 자세히 살펴하면 다음과 같다.

왕성의 동쪽에 위치한 무계리산성은 대가야 왕도 동쪽 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성으로 파악 된다. 즉, 지근거리에 있는 봉화산성과 월성리보루성에 비해 둘레·성벽 높이 등 규모가 큰 무계리산성은 해발고도가 높다. 인근에 중형분인 박곡리 고분군이

위치하여 다수의 군사가 주둔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된 거점 산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가야 산성의 대부분은 테뫼식이지만 주산성과 운라산성은 내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운라산성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주산성과 운라산성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정연한 모습을 갖추었다(정동락 2013: 103). 대가야 도성 북방의 1차 방어선이 대가천변이자 현재 고령과 성주의 경계지역인 노고산성-예리산성-의 봉산성 등이라고 한다면, 운라산성이 도성 북방의 2차 방어선에 해당한다. 현대 기준



1.노곡리고분군①, 2.노곡리고분군②, 3.노곡리고분군③, 4.노곡리고분군④, 5.박곡리고분군, 6.백리고분군①, 7.백리고분군②, 8.성주 오천리고분군, 9.성주 계경리고분군Ⅰ, 10.성주 계경리고분군Ⅱ, 11.에리고분군, 12.대평리고분군, 13.화암리고분군, 14.월산리고분군①, 15.월산리고분군②, 16.월산리고분군③, 17.월산리고분군④, 18.후암리고분군, 19.본관리고분군, 20.폐번리고분군, 21.종화리고분군①, 22.종화리고분군②, 23.연조리고분군, 24.지산동고분군, 25.고아리고분군, 26.장기리고분군①, 27.장기리고분군②, 28.양전리고분군, 29.반운리와질토기유적, 30.반운리고분군, 31.개포리고분군, 32.구곡리석곽묘군, 33.용리고분군, 34.고곡리고분군, 35.안립리고분군①, 36.안립리고분군②, 37.안립리고분군③, 38.귀월리고분군, 39.신곡리고분군①, 40.신곡리고분군②, 41.산주리고분군, 42.학거리고분군, 43.산당리고분군, 44.송립리고분군①, 45.송립리고분군②, 46.합가리고분군, 47.사전리고분군, 48.도진리고분군①, 49.도진리고분군②, 50.용리제철유적, 51.합천 야로리야철지, 52.합천 하번리고분군, 53.합천 길령리고분군, 54.합천 월광리고분군, 55.외리토기마터, 56.합가1리토기기마터, 57.합가2리토기기마터

[그림 8] 대가야 중심권역 고분군의 위계와 성곽유적 분포도(배성혁 2019)

으로 본다면, 1차 방어선의 각 산성이 연대 단위 본부라면, 2차 방어선에 있는 운라산성은 사단 본부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운라산성 주변에 4개의 고분군(월산리 ①~④)이 밀집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다수의 군인들이 상주하였을 것이다. 그 후방의 본관리 세력은 이를 통괄하는 역할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존재라고 파악된다.¹²⁾ 후방인 2, 3차 방어선에 더 상위의 지휘관이 위치하므로 최전방에 비해 고분군 및 고총의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본관리 세력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5세기 후반 이후 신라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왕경 북쪽과 동쪽 방어선 사이의 중심부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왕도 방어를 책임지는 사령부가 왕경 북쪽에 있고, 북방에 다수의 고분군과 산성이 다중으로 배치됨은 큰 강물로 자연 경계가 뚜렷한 동쪽의 낙동강보다는 육로를 통한 북쪽 방어에 더 치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관리 고분군 세력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천을 지키는 성곽들의 남쪽이자 낙동강 방면의 방어선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궁성 주변의 최고 지배층의 고분군(지산동·연조리·고아리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규모나 출토유물상 가장 상위층의 고분군이라는 점이다. 이는 ‘왕도방위사령부’의 핵심 집단과 관련지을 수 있다.

왕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본관리집단이 동쪽의 낙동강변보다 북쪽의 대가천 방면에 위치하는 것은 신라가 큰 강인 낙동강을 도하하는 것보다는 대가천 상류역을 통해서 고령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응하여 대가야도 대가천유역에 방비를 더 튼튼히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은 주목된다. 즉, 성주의 서쪽 외곽에 해당하여 고총고분이 축조될 기반이 없는 변경지역인 성주 명천리 고분군과 할미산성은 대가천상류역에 위치한다. 이곳에 고총고분군이 축조되고 인근에 산성이 축조되는 것은 대가야 세력에 대한 신라세력의 강한 압박을 의미한다(조효식 2013: 140).

2) 대가야 산성의 축조 시기와 축조 배경

대가야의 성곽 축조 배경으로는 신라의 낙동강 이동지역 장악과 관련된다. 고령군 다산면과 인접한 낙동강 동안의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죽곡리 고분에서는 신라 전형의 ‘出’자형 금동관을 비롯해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토기류와 여러 부

12) 백제의 경우, 수도 5부에는 각기 수도방위 및 경찰 임무를 위해 각 500명씩 배치되고, 달출 관등이 지휘하였다.

장품들이 출토되었다. 성장 기반이 없던 신라 변경지역에 대형 고총고분군이 두 곳이나 축조되고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부장품이 부장되는 것은 지방관의 파견 및 외적 지원에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 더구나 고총고분군의 인근에 5세기 중후반대의 산성이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이서지역에 위치한 대가야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가야의 북쪽에 접한 대가천 상류지역의 성주 명천리 고분군과 할미산성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가야 동쪽과 북쪽에서의 신라의 축성과 압박은 대가야로 하여금 변경지역에서의 축성사업을 서두르게 하였을 것이다. 즉, 신라 성곽인 성주 할미산성과 마주한 대가야의 성곽들이 대가천 남쪽 산지에 선상으로 분포하여, 대가천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접경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5세기 중엽 이후 고령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 고분군이 집중 축조된다¹³⁾(조효식 2013: 140~142).

요컨대, 5세기 후반대는 신라의 가야로의 서진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므로 대가야 왕권에서는 방어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5세기 중엽 이후 대가야 멀망기까지 고령 왕성 외곽에 보이는 다수의 대가야 고분군은 대가야 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가야 세력의 방어체계와 연결지어 보아야 한다.

3) 대가야 왕도 방어체계에서 본관리 세력의 위상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대가야 왕궁의 북쪽에 자리한 본관리 세력에 대해 왕도 방어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김세기 2023).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상술해 보기로 한다.

본관리 고분군 출토 철기로 보면 무구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즉, 축소모형철기인 착형철기 · 겹형철기 · 도자형 철기 등 소형철기를 제외한 여타 철기류는 무구류의 비중이 높아 본관리 고분군 피장자들의 무장적 성격을 보여준다. 본관리의 대형분인 36호분에서 투구와 갑옷의 소찰들이 발견되고 환두대도와 말재갈 · 은장말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34호분에서는 철도편과 철제화살촉이 다발로 출토되었고, 35호분에서는 이 고분의 주인공이 무장임을 암시하는 몽고발형투구의 부속구인 금동소찰과 철모 등의 무장구와 교구 등 마구가 출토되었다. 석곽묘 중 C호묘는 석곽 중 규모가 크

13) 왕성 바로 북쪽에 위치한 본관리 34 · 36호분의 개배나 호로병토기, 발형기대는 지산동 44호분과 대비될 수 있어 5세기 후엽경으로 볼 수 있다(김세기 2023). 그리고, 5세기 4/4분기에 비정되는 도진리 고분군이 발굴조사 된 바 있다.

고 능선 경사면의 중앙에 위치하며 여기서도 봉고발형투구 및 부속 소찰들과 화살통인 호록 끈을 장식하는 쇠붙이와 교구가 출토되어 타지역에 비해 무장구가 중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관리 고분군 집단은 대가야의 왕경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 무장세력임을 암시한다.



[그림 9] 본관리 고분군 출토 무기와 방어구(대가야박물관 ·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22)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 위치를 함께 고려하면, 본관리 고분군 축조 세력은 대가야 왕실의 직속 집단으로 王畿에 주둔하면서 왕도와 왕궁을 방어하는 ‘왕도방위사령부’와 같은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이 세력은 왕도의 직속집단이면서 일대지역을 지배하는 군사집단이다. 낙동강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 연조리의 왕궁에서 10km 내외의 낙동강 동안에 봉화산성(강정리보루성), 무계리 산성, 도진리산성을 축조하여 국경방위선으로 삼고, 5km 내외에 위치한 망산산성, 운라산성, 옥산성 라인으로 수도방위선으로 하여 동북방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조). 본관리세력은 수도방위의 중요 업무를 맡은 핵심세력이며 지산동 왕릉지역에서 출토되는 지배권의 상징인 제의토기인 원통형기대를 사여받았고 왕기를 지키는 주요 임무를 수행한 집단일 것이다. 이는 주요거점 방어성인 운라산성의 월산리 고분군 세력, 무계리산성과 강정보루의 박곡리 고분군, 도진리산성의 도진리 고분 세력보다 규모나 출토유물에서 월등히 높아 본관리세력의 위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세기 2023: 82~84). 즉, 본관리세력은 왕도 2차 방어선인 운라산성-옥산성-망산성-내곡리산성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궁성지 주변의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면 최대의 고분군이다.

대가야의 수도인 대가야읍은 5~6세기 당시에 동쪽과 북쪽으로 강력한 신라세력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즉, 대가야 왕궁터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불과 10km 정도 이격되어 신라세력 혹은 신라 영향하의 세력(성주·대구·창녕)이 위치한다. 큰 강이 자연경계를 이루는 동쪽 국경선과 달리, 북쪽 국경선은 신

라 통제를 받는 성주세력이 육로로 연결되고 있어 동쪽보다 북쪽에 더 방어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쪽방면보다 북쪽방면에 더 많은 고분군과 성곽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궁성터 주변의 지산동·고아리·연조리 고분군을 제외하면 그 규모나 위세품이 탁월하여 대가야가 특히 주목한 세력으로 왕도 방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위치였음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대가야의 직할지인 본관리세력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위치하여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본관리 집단은 대신라 방어의 왕도 사령부로서 대가야의 중앙세력인 지산동세력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본관리 고분군의 규모나 부장유물로서도 뒷받침된다.

V. 맺음말

필자는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대가야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본관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대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지역연맹체론과 고대국가론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대가야 통제하의 지방 수장의 고분 규모나 위세품은 고령 세력과 유기적인 관련을 보이는 점에서 대가야 고대국가론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문헌 내용을 고려하면 대가야연맹체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대가야영역 내에도 고령 중심의 왕도 직할지(上部), 下부로 추정되는 인근의 합천댐수몰지구(합천 봉산면 일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대외 교섭창구인 섬진강하구의 하동지역(帶沙) 등은 직접지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치권이 강해 대외적으로 國名이 남아 있는 다수의 간접지배 권역 혹은 연맹체의 일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가라국에서의 거리에 따라 동맹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령에서 가장 거리가 먼 호남동부지역의 임나사현이나 기문의 경우 자율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신라, 백제와 달리 대가야의 소속국에 대한 간접지배 강도는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 권역내에는 아직 자치권이 강해 국명을 유지한 다수의 소국들이 있었고, 이는 백제, 신라권에서 국명을 유지한 소국들이 희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가야가 백제, 신라에 비해 사회발전단계가 늦어 고대국가로 가는 길

목에 있었고 초기국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한다.

대가야 왕도에 속한 고령 본관리 고분군의 구조적 특징이나 위세품은 대가야 권역 내 지방 수장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면도 일부 보인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에서 지산동 고분군 일대를 제외하고는 고총의 규모나 위세품에서 가장 상위의 고분군이다.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 왕경의 북쪽에 자리하는데, 입지 · 출토 유물로 보아 대가야 왕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유력집단으로 파악된다. 본관리 세력은 5세기 후반 이전에는 고령지역 읍락의 핵심취락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성이 있지만,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왕도 내 방어를 전담하는 유력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 본관리세력은 신라 통제하의 성주 방면 및 낙동강 방어선을 통괄하는 왕도방위사령부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대가야 왕권이 특별히 중시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본고는 2023년 11월 17일 '고령 본관리 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6 | 게재확정일 2024. 1. 26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1999.『가야의 그릇받침』.
- 김대환. 2012.「한반도 국가형성론에서 '초기국가'의 제안」,『한일지역 고대왕권과 국가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 김세기. 2003.『고분·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2020.『대가야 고대국기론』, 학연문화사.
- _____. 2023.『제1장 대가야의 재발견』,『대가야와 그 이웃들』, 학연문화사.
- 김용성. 2015a.『대가야의 고총과 고총체계』,『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_____. 2015b.『대가야의 순장』,『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김태식. 2002.『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22.『고령 본관동고분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 박대재. 2013.『국가형성기의 복합사회와 초기국가』,『선사와 고대』38. 한국고대학회.
- _____. 2023.『한국의 '고대'와 초기국가』,『한국고대사연구』110. 한국고대사학회.
- 박천수. 1996.『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_____. 2006.『임나사현과 기문·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가야·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제12회 가야 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 _____. 2010.『가야』,『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
- _____. 2012.『고령지역 유적 유물을 통해 본 대가야의 발전과 역사적 의의』,『경북지역 가야유적의 세계유산 가치 검토』,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20.『5~6세기 대가야의 발전과 도성의 성립』,『대가야의 도성』, 제14회 대가야사 학술대회, 고령군·대가야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
- 배성혁. 2019.『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가야고분군Ⅴ』,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권), 가야 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백승충. 1992.『'가야'의 용례 및 시기별 분포상황-'가야연맹체'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부산사학』22.
- _____. 1995.『가라국과 우륵십이곡』,『부대사학』19.
- _____. 2005.『가야의 지역연맹론』,『지역과 역사』17.
- 백진재. 2020.『5세기 말~6세기 중엽 가라국과 가야제국의 관계』,『가야와 주변, 그리고 바깥』, (한국고대사학회 염음), 주류성.
- 이동희. 2014.『제4장 전남동부지역 가야문화』,『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이한상. 2019.『관과 이식으로 본 대가야 권역』,『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이형기. 2017.『대가야의 부체제에 대한 고찰』,『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이희준. 1995.『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_____. 2003.『합천댐 수몰지구 고분 자료에 의한 대가야국가론』,『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_____. 2016.『대가야고고학연』, 사회평론.
- 정동락. 2013.『고령지역 산성의 분포현황』,『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제9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 조효식, 2008, 「낙동강 중류역 삼국시대 성곽의 변천과 방어체계」, 『한국고고학보』44.
- _____, 2013, 「대가야의 방어체계」,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제9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대동문화재연구원.
- 최재현, 2023, 「대가야 왕도의 공간적 범위」, 『가야고분군 VII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9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48-4, 京都大學文學部.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Based on Ancient Tombs and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Lee, Dong-Hee(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Media, Inj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aegaya's political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group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focusing on the golden age of Daegaya, from the late 5th century to the early 6th century.

The political system of Daegaya was examined with emphasis on the regional confederation theory and the ancient state theory. From an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the ancient state theory can fit Daegaya as the size of the tombs and prestigious items of local heads under Daegaya's control show an organic relevance with the Goryeong group. However,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literatures, the Daegaya confederation theory cannot be ignored. In other words, it seems necessary to divide it into a number of indirectly controlled areas that had strong autonomy and retained the country's name externally, and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would have varied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Goryeong Gara. Unlike Silla and Baekje, Daegaya's indirect control over its affiliated countries would not have been strong. Daegaya was on the path to becoming an ancient state at a later stage of social development than Baekje and Silla, a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e it as an early stat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estigious goods of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Goryeong, belonging to the Daegaya's royal capital are similar to or even superior to those of local heads in the Daegaya region. The ancient tombs

of Bongwan-ri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Daegaya's capital, and judging from the location and excavated artifacts, it is identified as an influential group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fense of Daegaya's capital.

Key words : ancient tombs, Daegaya, political system, Bongwan-ri, defense of capital.